

정유기업 주식 사두면 “대박...”

삼성증권, 휘발유 할인가격 단계적 환원으로 ... 엔터리 분석 가능성

GS칼텍스의 휘발유 가격 단계적 환원 발표로 정유주가 추가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삼성증권이 7월1일 주장했다.

GS칼텍스는 리터당 100원 할인 조치로 내렸던 석유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6월30일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정유기업들도 시장 원리에 따라 석유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 박정아·이종욱 연구원은 “GS칼텍스의 발표는 국내 정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리스크를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라면서도 “하지만, 정부 규제 리스크는 이미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됐으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감안해도 현 주가 수준은 적정주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EA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91달러까지 하락하고,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 재차 불거진 현 상황이라면 향후 추가적인 악재 출현으로 정유 섹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1>